초등 2~3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요술 화장품

글 임지형 | 그림 이윤우

스푼북

요술 화장품

- **글:** 임지형
- **그림:** 이윤우
- **출판사:** 스푼북
- **정가:** 11,800원
- **분량:** 120쪽
- **대상:** 초등 2~3학년
- **주제어:** 자존감, 외모, 고민
- **교과 연계:** [국어 2-1] 6. 차례대로 말해요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3-1] 1. 재미가 톡톡톡
  [국어 3-1]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책 소개

친구들은 하나씩 들고 있는 화장품인데, 서운이만 화장품이 없어 겉돌아요. 속상해서 혼자 걷고 있던 서운이가 발견한 신비한 인형 뽑기 기계. 서운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화장품 세트를 뽑았어요. 어라? 이 화장품, 바르기만 해도 달라져요! 꼭 요술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화장품이 언제 사라질까, 친구들이 비밀을 알아차리면 어쩌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서운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서운이의 이야기를 읽어 보아요.

주요 독후 활동

요술 화장품

- **책 읽기 전** ① 표지 살펴보기 ② 책 속 어휘 익히기
- **책 속으로** ① 이야기의 주요 장면 ②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
- **책을 읽고 나서** ① 나의 몸 ②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친구들은 하나씩 들고 있는 화장품인데,

나만 없어 겉돌아요.

속상해서 혼자 걷고 있다 발견한

신비한 인형 뽑기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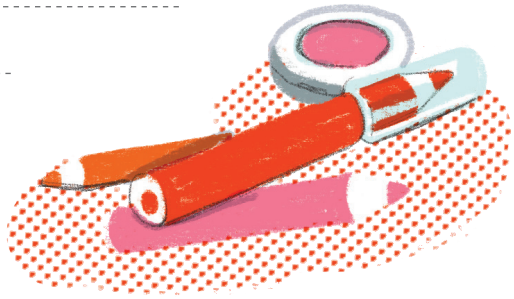
처음 보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마음에 꼭 드는

화장품 세트를 뽑았어요.

어라? 이 화장품, 바르기만 해도 달라져요!

꼭 요술 같아요!

앞표지 그림과 뒤표지 글을 보면 《요술 화장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독서 전

• (1~2)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낱말과 뜻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아슬아슬하다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분명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살짝 넘기다.
어물쩍하다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결의	마음이 약간 위태롭거나 조마조마하다.
꿍꿍이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속으로 우물쭈물하는 궁리.

2 빈칸에 들어갈 꾸며 주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 주세요.

[보기]

철커덕철커덕　　핑글핑글　　우르르　　삐빅삐빅

[27쪽] 그때였다. 한여름 태풍 때나 불 법한 거센 바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있는 쪽 길바닥과 벤치에 떨어져 있던 은행잎이 (　　)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 그러고는 곧 회오리가 되어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동시에 뽑기 기계에선 (　　) 소리가 났고 (　　) 갈고리가 움직였다. 순간이지만 눈이 (　　) 돌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독서 중

• 서운이는 속상한 마음에 정처없이 길을 걷다가 수상한 뽑기 기계를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며 서운이가 요술 화장품을 갖게 되기까지의 일을 그림과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할머니에게 빌린 돈으로
마침내 화장품 세트를
뽑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를 보면서
화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화장품 세트를 발견하고
뽑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 써 버리고 말았어요.

동전을 다 쓰고도 화장품을
뽑지 못해 신기한 할머니에게
동전을 빌렸어요

요술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자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생기가 넘쳤어요.

독서 중

• 다음 상황에서 서운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보기]

두려움　　뿌듯함　　편안함　　불안함

인물의 상황	인물의 마음
수진이를 향하던 눈길이 내게로 향하니 조금 얼떨떨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기분이 좋았다. 어쩐지 내가 우리 반에서 최고로 예쁜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인기도 말할 것이 없었다.	뿌듯함
매일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팔레트를 생각하면 내 심장이 닳는 느낌이 들었다. 자꾸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불안해졌다.	
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곧 수업 종이 울렸지만, 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끝내 어찌할 수 없었던 선생님이 조퇴를 시켜 주셨다. 결국 공포가 나를 집어삼켜 버렸다.	
"한동안 달라 보이더니 이제 좀 예전 모습 같네. 1학년 때 이빨 빠진 모습은 더 귀여웠는데……. 쩝쩝." 민찬이 말은 아주 작았다. 그런데도 내 귀엔 또렷이 들렸다. 세상에! 여태 내가 못생겨 놀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됐다.	

독서 후

[54쪽] "사실 화장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도 절대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수진인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며 주먹까지 쥐어 보였다.

[97쪽]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 화장품을 대신할 것을 찾게 되지? 눈을 감으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무섭고 떨렸다. 거기에 화장하기 전이었던 내 민낯이 떠오르면 진저리가 쳐졌다. 이제 더 이상 여자아이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받을 수 없겠지? 나에게 친절했던 남자아이들의 모습은?

화장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화장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화장을 하지 않으면 창피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화장이 지워졌을까 봐 걱정하면서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는 건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몸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말랐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답니다. 우리 몸이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아래에 적어 봅시다. 그리고 해당 신체 부위에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118쪽] 한동안 화장한 내 모습에 관심을 보였던 아이들의 모습이 민낯이 된 내 얼굴에 겹쳐졌다. 솔직히 두려웠다. 이제 그때 받았던 환호와 관심은 사라질 게 뻔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설령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냥 당당해지고 싶었다. 나를 잃어버려서 힘든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나았다.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게 된 서운이에게, 앞으로를 응원하는 편지를 적어 보아요.

서운아,